

# “민주주의 지키려 밤샘”... 사전투표함 지킴이의 헌신

광주 시민들 자발적 선거감시활동  
선관위 건물 앞 교대로 투표함 지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순찰  
“외롭고 피곤하지만 공정선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나왔죠.”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곳곳에서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이 주도한 사전투표함 지킴이들의 자발적 선거 감시 활동이 이어졌다.

‘시민의 눈’은 지난 2016년 4월13일 실시된 20대 총선 때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이들은 투·개표 참관과 사전투표함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확산을 목표로 이번 대선 사전투표 기간에도 현장 감시 역할을 전격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함 지킴이들은 심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친 몸을 이끌며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를 위해 새벽까지 감시 활동을 펼쳤다.

1일 오전 1시께 찾은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서구·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앞. 선관위 직원들이 퇴근한 적막한 건물 앞에서 사전투표함 지킴이로 나선 시민 두 명



1일 새벽 광주 서구에 위치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 지킴이 최승희(55)씨가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투표함 보관소를 주시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들은 건물 주변을 돌며 순찰하거나 입구 쪽을 지키며 외부 출입 인원을 감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한다고 생각하니 힘들지 않다”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의 활동은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4시간 단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후 6~10시,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2시, 오전 2~6시 등 시간대별로 사전에 신

청한 이들이 사전투표함을 감시하는 방법이다.

한 시민은 “지난번 대선때부터 참여하고 있다”며 “외롭고 피곤하지만, 투명한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힘이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부여된 시간을 모두 채운 시민들은 다음 순찰조를 위해 간식과 생수를 챙겨 놓는 등 작은 연대의 손길도 이어졌다.

비슷한 시각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시민들의 밤샘 활동이 계속됐다. 올해 처음 사전투표함 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최승희(55)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을 보면서 시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싶어서 신청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전투표함 지킴이에 신청하지 않은 일반 시민도 동참했다.

광산구 주민 정건주(27)씨는 “선관위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인 만큼 혹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돼 지켜보러 나왔다”며 “공정한 선거에 힘을 보탬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지킴이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자,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받는 자, 공무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광주의 사전투표 지킴이 참여자는 43명으로 집계됐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 발달장애 청소년 ‘E.T야구단’, 첫 전국 출전서 우승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로 지원  
8개 팀 넘고 이만수배 정상 ‘우뚝’  
기부자 응원단, 현장서 감동 함께  
“열정과 나눔, 따뜻한 연대의 결실”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동구 ‘E.T(East Tigers) 야구단’이 첫 전국 무대에서 우승을 거두며 감동적인 드라마를 완성했다.

1일 동구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 전호생활야구장에서 열린 ‘제3회 이만수배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대회’에서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E.T(East Tigers) 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한국프로야구의 전설 이만수 감독의 헬스파운데이션과 한국발달장애인 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관한 전국 규모의 티볼 대회로, 전국 9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벌였다.

E.T 야구단은 이번이 전국 무대 첫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팀워크와 끈기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며 놀라운 성과를 일궈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 전호생활야구장에서 열린 ‘제3회 이만수배 발달장애인 티볼 야구대회’에서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E.T(East Tigers) 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동구 제공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창설된 E.T 야구단은 후원이 끊기며 한때 해체 위기까지 몰렸지만, 2023년부터 동구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구는 이번 대회 참가를 기념해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와 협력해 기부자들을 현장에 초청, 공식 응원

단을 구성해 선수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선수들의 열정과 더불어 지난 3년간 고향사랑 기부자들이 함께 쌓아올린 소중한 결실”이라며 “지역과 기부자들의 따뜻한 연대를 통해 성장해나가는 E.T야구단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 투표용지 훼손한 유권자들... 선관위·경찰 조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광주 유권자들이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1동 사전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씨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후보를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

계를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광주 서구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도 지난달 29일 오전 6시20분께 60대 남성 B씨가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났다.

서부경찰 조사결과 기표를 잘못했던 B씨는 용지를 교체해주시 않자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와 해병대 예비역들이 1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연합뉴스

## 전남대·조선대 의대, 2026학년도 지역인재전형 181명 선발

전남대 76%·조선대 68%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70% 수준으로 올렸다.

1일 각 대학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는 내년도 입학 정원 126명 중 76.19%인 9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 모집(93명)에서는 지역인재전형으로 78명을 선발하고 지역균형전형 3명, 학생부종합전형 10명, 농어촌전형 2

명을 모집한다.

정시(33명)에서는 수능 일반 15명, 지역인재 18명을 뽑는다. 전국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 초반으로, 전남대는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선대 의대는 신입생 정원 125명 중 68%인 85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한다. 수시(102명)에서는 68명, 정시(30명)에서는 17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두 대학 모두 수시모집에서 학생기록부

심사 외에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 중 3개 영역 점수 합 5등급 이내 충족 등 최저등급 기준을 두고 있다.

이들 대학의 의대 신입생 정원과 지역인재 비중은 2024학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경우 광주·전남·전북 소재 호남권 고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학생이 대상이다. 최동환 기자

## 특전사동지회-해병대예비역, 5·18민주묘지 참배

“오월정신 헌법수호, 통합 앞장설 것”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와 해병대 예비역들이 1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고문과 조강해 해병대 예비역 소장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친 이

들은 행방불명자 묘역과 1980년 5월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등의 묘역을 둘러봤다.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고문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오월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5·18을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